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85호 현대불교 29
2012년 4월 25일(음 3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나부터 알아야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다

신도회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이어만 리 미주(美洲)에서 무척 수고를 많이 하시고 돌아오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습니다. 피로도 채가지지 않으셨는데도 오늘 저희 한마음 법회제 법회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원 일동은 큰스님의 법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 저희들의 공부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큰스님: 오늘 법의 형제분들이 한데 모여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 한마음으로 목청을 높여서 노래하시는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법음을 똑같이 부르시는 걸 보고, 감사하고 또 놀랐습니다. 그것도 성의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음의 이심전심을 서로 알게 하고... 나 자체부터 알아야 이심전심을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잠깐 들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다 옳고 그렇지만은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혼란이 옵니다. 잘 감안해서서 참작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도 가질 것이 없고, 나중에 그걸 알고 보면 하나도 바랄 게 없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웃었다.' 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웃었다.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모든 대중들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 대목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供體)·공식화(供食化)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올라오면서 쫓고 쫓기며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만큼,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의 마음의 동자를 본 겁니다. 꽃을 한 번 들었으니 바로 법입니다. 그제, 법에 의해서, '웃었다' 이라는 것은 같이 동작을 한 거죠. 그러니 꽃 한 송이도 바로 그 웃음이고, 바로 가슴이 웃은 것도 또한 그 꽃 한 송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으니 그 어디, 꽃과 가슴이 웃은 것이 둘이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만민과 더불어 둘이 아닌 그 표상을 그대로 보여 주신 거죠. 다보

탑(다자탑, 多子塔)에 같이 앉은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도량입니다. '다보탑' 하면 전체 삼천대천세계 그 자리가 한자리라는 뜻입니다. 한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얼마나 가깝하고 광대무변한 법이겠습니까? 그러니 한 마음 한동작 바로 한자리, 나중에 가서는 둘 아닌 도리에 의해서 발을 짚 내밀었다 하는 것은, 한자리에 한발로 이 땅을 딛고 모두가 찰나에 나뉘어 있으니 어찌 그것조차도 둘이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진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즉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어서 바로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 그리고 모두 한도량 안에 들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또 몸뚱이 하나로 본다면 영원한 자기의 생명, 그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가 있어서 법이고, 몸을 움직여릴 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활용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바로 자기 자성삼보(自性三寶)부터 알아야죠. '삼천(三千)' 하면 별써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으로, 세 개는 하나의 천으로 귀합이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삼천' 하면, '천' 이 이 세상을 전부 한데 귀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定)'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맺을 하나를 놓고선 심봉을 하나 탁 꽃으니까 그게 '천'이죠. 이 맺을은 맺들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심봉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세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법의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주 자체에서 다 하니까 바로 이것도 네놈이 하는 거, 이것도 네놈이 하는 거, 이것도 네놈이 하는 거, 모두가 네놈이 하는 거, 과거에 나를 끌고 다니던 나 자체가 바로 내 모습을 다시 그림 그러듯 그래서 이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렇게 형상을 시켜 놓으니 모든 것은 바로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주어진 내 벗들이요 친구들이요.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여러분이 살던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벗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벗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벗들이 달라는 대로 여러분



그림 · 최주현

은 열심히 벌어서 그 벗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이요, 위로는 부처와 한자리라고 한 거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런 것인데 바로 위로는 마음의 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기 중생부터 제도하라는 얘기도 되죠.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 저것, 일이나 가지니 하지만 뿌리만 알면 나무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죠. 뿌리를 모르다면 윗가지와 잎새만 알지, 뿌리는 모르거든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지뭇가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마다 잎새가 달렸는데, 그 잎새는 수요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려면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하는 건.

한생각에 우주를 쌀 수도 있고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우주를 굴릴 수도 있고 우주를 들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그릇 한마음이라는 이 뜻은 정말이지 뿌리 없는 기둥이요, 잎새 없는 바로 불바퀴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광력이나 전력·자력·통신력 모두가 거기에서부터 배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전력을 끌어와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뼈저리게 건건이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그게 업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건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것 없고 누구 원망도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바로 나로부터 그 일을 벌여 놓은 거니까 나로 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누가 갖다 주고 누가 빼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속명통 컴퓨터라고 했고, 그 컴퓨터에 달려 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 있다는 그 사실, 과거에 살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게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할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따르게 되죠.

지금 화두를 받아서, '무(無)자' 화두나 이러

30면으로 계속

제1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음승으로서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 내용

- 1. 기초:** 삼위요,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 2. 중급:** 시련, 대령, 관육,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정(깃소리), 39위, 북청계, 고혼청, 현좌계, 진령계, 칠연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 3. 고급:**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제, 수록제, 종사이운, 패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계

- 접수기간: 수시모집
- 회비: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반영환관 사진 2장
- 장소: 김해시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소: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화: (055)322-0088 / (055)332-1675
- 강주: 민지호 010-4466-3575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정: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도량계, 다계, 향화계, 오공양, 읊남, 기령이, 법고
- 사물: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장사

문의처: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층
대한한의학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에서

15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3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이름에 관한 모든 것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할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시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할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할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시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증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유행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완하고 공명과 태과한 오해를 피하며 남감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서울에서 유명한 작업소 goodname114.com

누구 탓 누구 원망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돌려야

29면에서 계속

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린 한 단계 넘어야 합니다. '이게 맞고?' 하고 가는 것보다도... 뭐긴 뭐니까? 그대로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나와서 공(空)했도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화두며 공했다. 공했으니 그 무엇을 바깥으로 찾으라. 과거는 짚어지고 나왔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 바로 현재의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공한 자체가 바로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또는 '내가 있다는 걸 너만이 증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觀)'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합니다. 또 망상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망상 때문에 나는 공부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답한 것이 나온다 이럴 때도 그런 데에 끄달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망상은 팔죽 술에서 팔죽 꿀을 때에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듯이 모두 한 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났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게 망상이겠습니까? 수없는 중생들과 인연으로 인해서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직원과 같은데, 어떻게 직원을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직원에게서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답답함이 나오더라도 그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답답해 하니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리지 말고 속지 말고 '아, 답답한 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 한마음 속에서 말이야.' 할 때가 바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그 찰나입니다. 입력을 다시 해 보십시오, 지워지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나도 잊고저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고 바람이 생생 불고 날이 찻습니다. 그럴 때 바람 쐬다고 나가서 거닐었죠.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가는 것도, 또는 어떻게 하라는 그것조차도 없건만 글썽, 그 이그러진 얼굴의 눈가엔 이슬방울이 지워질 사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서 그 일세는 비바람에 으쳐진 상처가 아파서 불뿔 떨어뜨려 땅에도 떨어뜨려서 구르고, 나무에 붙어서도 퍼렁퍼렁 울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데마다 그런 짝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내 가슴속에선 남 보이지 않게 속으로 흐느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면 사람 사는 거, 짐승들 사는 거, 벌레들 사는

거, 나무들이 저렇게 사는 거, 모든 산천초목, 물, 바람, 흙, 사람, 벌레, 짐승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읊으면서 걸었죠.

아, 달 하나
별 하나
구름 한 점,
내 뉘 좇아서 이리저리 걷다 보니
앙상한 가지에 으쳐진 상처가
아파 우는 그 목소리는
내 귓가에 스쳐 가는구나.

것도 알고, 잘못되는 것도 알고 잘되는 것도 알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해 놓은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빠대귀 한 무더기, 거기다 왜 절을 했단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 될 때가 없었고 자식이 안 될 때가 없었고 형제가 안 될 때가 없었으니, 지금의 우리 육(肉)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모두가 부모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식이라고 소립니다. 알고 보면 한 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한 찰나에 한 철을 겪고, 우리들 그 일세는 어디로 가랑잎이 돼서 굴러가다가

부지간이나 이런 것에도 착을 두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하고 '저놈의 새끼 탓이야. 네 탓이야.' 뭐 이거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탓을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으르렁드르렁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끌고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 몸이, 모습을 가지고 철모르고 얼마나 살 것이며 또 철들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철들어서 조금 살다 보면 벌써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다 쉬어갑니다.

됩니다. 자기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만이 자기를 알아 주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이지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누가 그 아픔을 알아 줍니까? 이 세상 한 철 살아가는 길에서도 짧고, 짧으면서도 그 긴 세월을 어느 누구가 알아 줍니까?

그리고 내가 부탁할 말은 항상 남의 입장에서 서서, 나를 빼고 남의 입장에서 서서 남의 마음을 알아 줄 수 있는 그런 행과 말과 뜻을 갖는다면 모두가 귀하게 보며 이 세상천지가 다 귀하게 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법계에서도 전부 귀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령들도 전부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선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행하십시오. 오늘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자1(남): 제가 한번 스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향내가 맡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여기서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조사하는 분이 10킬로미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많으면 3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냥 잊어버리고 잘 때면 코에 향내가 나는데, 그 시간이 일본 일초도 틀림없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나 혼자 이러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가족들에게도 냄새가 나는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스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님: 그제 마음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3시 반이면 도량(道場)을 하고 종송(鐘聲)을 하고 또 예불을 모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시 반이면 딱딱 일어나지게 되죠. 그거를 '예고, 3시 반이고 뭐고 자자.' 이렇다면 그 시간에 안 일어나집니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향내가 나고 자기 마음에서 모든 의식들이 '우리 지배인이 참 잘 하는구나.' 하면서 좋아서 마음을 향기롭게 가지니 향내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4월 7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으르렁드르렁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끌고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 몸, 이 모습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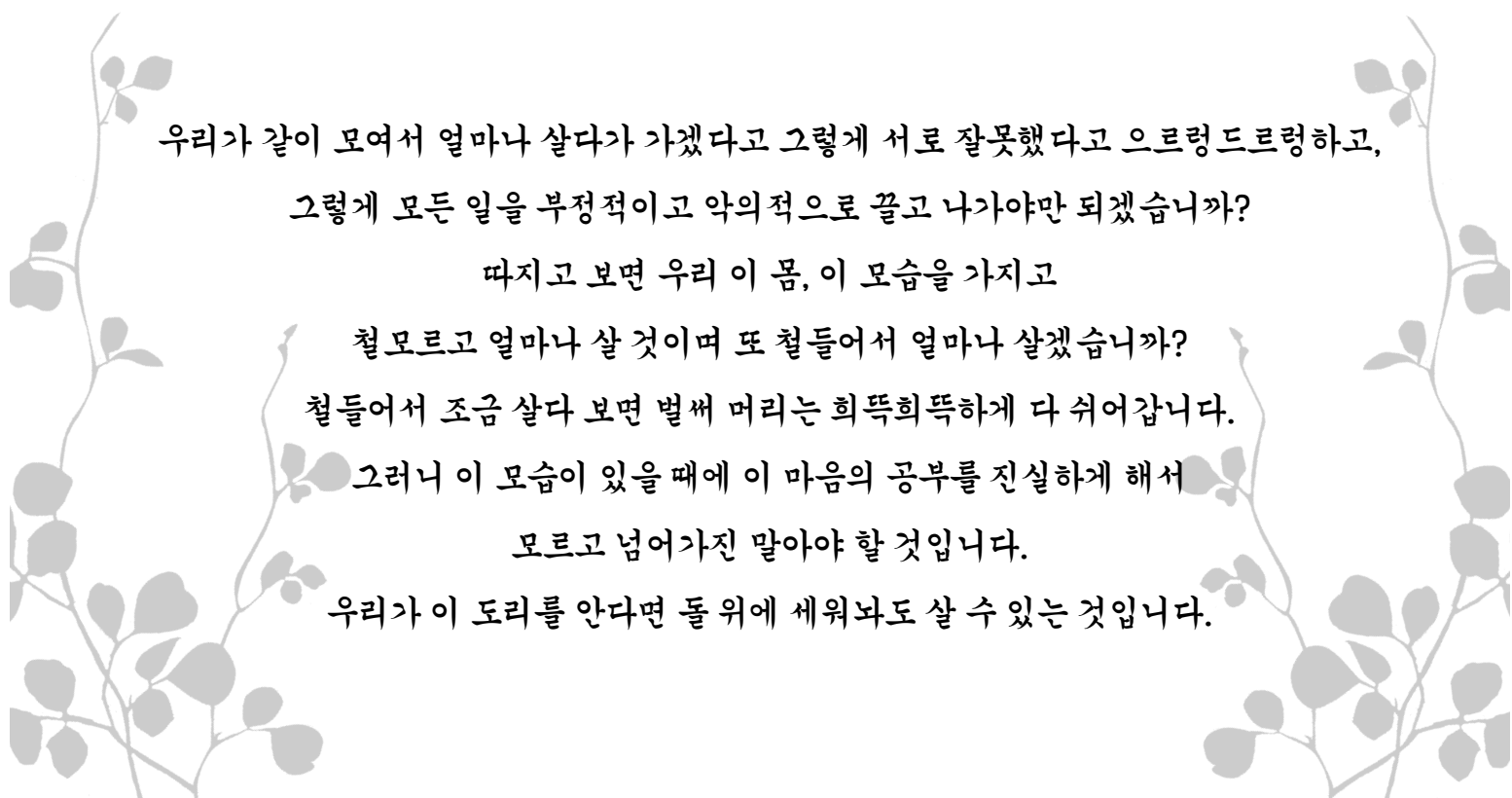
철모르고 얼마나 살 것이며 또 철들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철들어서 조금 살다 보면 벌써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다 쉬어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공부를 진실하게 해서

모르고 넘어가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돌 위에 세워놔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가고 오는 것도 없으려만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려만, 바로 내 눈가에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까?

그러면서 혼자 그 찬바람을 누비 두루마기로 막으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길이요, 사람 삶의 한 길이라면, 벌레도 그 생명체가 있으니가 그대로 무뎠방,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면서, 금방 붙잡혀 가서 술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이기에 불쌍한 것도 알고, 속상한

또 한번 보이지 않는 데로 굴러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볼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이지 눈물겨움도 감사를 느낍니다. 모두가 마음은 이십전십이요, 몸은 한 몸이요, 움직여가는 것도 다 똑같은 생명도 다 똑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쫓고 쫓기면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몸 벗기도 어렵습니다. 아파서 3년이고 2년이고, 왜 그렇게 앓는 줄 아십니까? 내 몸 벗기가 그렇게 어려워 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물질에 착을 두지 말고, 자식이나 형제나 부

그러니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공부를 진실하게 해서 모르고 넘어가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50%를 모르니까 유(有)의 세계의 50%만 알고 살게 되죠. 그래서 가슴이 아너너너 '너는, 말하자면 무의 세계, 무심(無心)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심과 유심이 한데 합쳐진 이 크나큰, 광대무변한 도리를 모르기에 한 점의 글씨도 못 쓰니까 자격이 없다.'고 내뿔었죠.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항상 말을 했듯이 어디에 세워 놔도 참으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거는 한 것 허무한 몸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귀한 것을 모르면 다음에도 귀한 것을 모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 嚴父 남양후인 홍길동 靈駕 行孝 伏爲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웁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80cm 160g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참회진언 타올	30수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숯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o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